

광양만권, K-배터리 공급망 핵심 거점 ‘정조준’

전남도, 국회 포럼서 이차전지특화단지 유치 전략 제시
원료·소재 중심 국가 전략산업 거점화 등도 본격 추진

전남도가 국회에서 광양만권을 국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열고, K-배터리 공급망 핵심 거점 도약 전략을 공식화했다.

전남도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포럼’을 개최하고, 정부의 배터리 산업 정책 기조에 맞춘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포럼은 권항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남도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인하 광양시장을 비롯해 지자체, 기업, 대학·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광양만권을 국가 차원의 이차전지 원료·소재 생산기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호남·영남·충청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을 제시하고, 호남을 핵심광물과 양극재 중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전남

도는 이러한 정책 흐름에 맞춰 광양만권을 신규 국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후보지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국내외 이차전지 산업 동향과 광양만권 특화단지 조성·육성 방향이 제시됐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전략, 인프라 확충, 산·학·연 연계 과제 등이 논의됐다.

전남도는 이미 제도적·행정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2023년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세제·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전라남도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정책 추진의 틀을 갖췄다. 현재는 특화단지 육성계획(안)을 마련하고 산·학·연·관 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정부 공모에 대응하고 있다.

권항엽 의원은 “광양만권이 대한민국 K-배터리 공급망의 핵심으로 도약할 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요 내빈 및 참석자들과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배터리 산업 경쟁의 중심이 생산량에서 공급망 안정성으로 옮겨

가려는 전환기에, 이번 국회 포럼은 광양만권의 전략적 역할을 분명히 한 자리”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 마감(내년 2월 27일)까지 오늘

논의를 육성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화단지 지정 시 신규 국가산단 개발과 기업 유치가 본격화돼 투자와 양

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전남 동부권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철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도시재생지원센터는 최근 나주시 문화예술소통창작소에서 ‘2025 전남도 도시재생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전남 도시재생 성과 공유…“협업모델 개발”

‘도시재생 커먼즈 데이’ 성과공유회…연계 확장 전략 모색

전남도 도시재생사업이 개발 성과 공유를 넘어 시·군 간 협력과 연계 확장 단계로 접어들었다.

전남도시재생지원센터는 최근 나주시 문화예술소통창작소에서 ‘2025 전남도 도시재생 성과공유회’를 열고, 올해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성과와 함께 향후 협업 모델과 연계 전략을 공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했다.

‘성과에서 연결로, 전남 도시재생 커먼즈 데이’를 주제로 열린 성과공유회에는 도내 시·군 도시재생 담당 공무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유관기관 실무자,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단일 사업 성과 발표에 그치지 않고, 향후 협업이 가능한 기관과 관련 사업을 함께 소개하며 도시재생의 실질적 확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행사는 강진읍 전남대학교 문화전대 학원 교수의 특강에서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주제성·관계성·지속성·혁신성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 방향을 짚었다. 이어 박성현 국립목포대학교 기획부처장은 RISE 사업과 연계한 대학 상권 활성화 사례를 공유했고, 이성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책임은 ‘위세어링(WeSharing) 도시자신 공유 플랫폼’을 소개했다.

남경완 여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은 서울시 베스트로컬 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이송학 21세기주막 대표는 로컬 자원과 우리술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도시 활성화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은 전남형 도시재생사업이 지역 자원, 대학, 콘텐츠, 관광산업과 결합해 확장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계 전략을 공유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공공조달시장 진입 맞춤형 지원·규제 혁신”

광주조달청, 사회적경제기업 소통 간담회

광주조달청은 22일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우환 광주조달청장은 “사회적 경제기업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소중한 파트너”라며 “지역 내 역량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발판 삼아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규제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도시철도 2호선 구간 상권 회복에 119억 투입

1단계 구간 23개 동 2만6000여 상공인 지원

상생카드 현금 등 소비 촉진·경영부담 완화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공사 인근 소상공인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119억원을 투입하는 ‘소상공인 및 상권회복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1단계 공사 구간 인근 23개 행정동에 위치한 소상공인 2만6000여 가소를 대상으로 상생카드 발급, 소비 촉진, 자금 지원, 경영부담 완화, 매출 회복 등 5개 분야를 종합 지원하는 현장 맞춤형 정책이다.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상생카드 특별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행사 기간 대상지역 내 가맹점에서 상생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기존 10% 환급에 추가 10%를 더해 총 20%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소비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공사 구간 인근 상권의 매출 증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에는 총 64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또 도로 개방 당일인 22일 시청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하고, 전체 공직자들이 공사 구간 인근 식당을 이용했다. 앞으로 자치구, 관계기관으로 참여를 확대해 공사 구간 인근 상가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비촉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4월부터 매월 둘째 주, 넷째주 금요일에 구내식당 중식을 휴무하며, 공직사회가 솔선수범 지역 소비 촉진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구내식당 휴무는 그동안 매주 2회 수요일(가족사랑의 날)과 금요일(지역경제 활성화) 석식에 적용했지만, 지난 4월부터는 월 2회 중식 휴무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며, 총 보증 규모는 500억원이다. 1700개사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1년간 3~4%의 이자도 함께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총

53억원이 투입된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게 1명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 업체당 1~2명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총 1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다.

아울러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회복 상담(컨설팅)도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 총 45개사를 대상으로 경영, 마케팅,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을 지원하는 종합상담(최대 4회)과 세무, 노무, 회계, 법률 분야 전문상담(최대 2회)을 병행한다. 총 2400만원의 시비를 편성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영향권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종합지원책”이라며 “소비 진작부터 자금, 고용, 경영까지 전방위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겠다. 앞으로도 시민과 상인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세계김치연구소, ‘AI 김치시뮬레이터’ 개발

배합비 입력만으로 원가·영양·맛 자동 산출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 재료의 배합비를 입력하면 원재료 비용과 영양성분, 맛(품질)을 동시에 자동 예측할 수 있는 ‘AI 김치시뮬레이터’ 기술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치는 사용되는 재료와 배합량에 따라 맛과 색, 조직감, 영양이 크게 달라지는 대표적인 복합 발효식품이다. 이로 인해 산업계에서는 국가·지역별 기호 차이와 원부재료 가격 변동, 배합 편차에 따른 품질 불균일 문제로 표준화된 제조기술 확보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최근 김치의 해외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현지 소비자 맞춤형 배합 설계와 비용 효율성, 품질 일관성 확보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김치 배합 설계는 전문가의 경험과 반복 실험에 크게 의존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고, 품질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배합비만으로 제조비와 품질을 동시에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 도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계김치연구소 연구팀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연구소가 장기간 축적해 온 김치지원은행의 원·부재료 정보 데이터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치산업 실태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 배합비 기반 AI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했다.

연구팀은 수천 건의 실험 및 산업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을 통해 배합비를 입

력하면 즉시 원재료 비용 산출과 영양성분 추정, 맛 품질 점수를 제공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완성했다.

해당 기술은 기업의 제품 개발과 품질 관리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가정에서 김치를 담글 때 재료 배합에 따른 감칠맛·매운맛 등 맛 특성과 영양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돼 활용 범위를 넓혔다.

이번 기술을 통해 신제품 개발 기간 단축과 원가 관리 효율화, 소비자 맞춤형 김치 개발 등 김치산업 전반에서 실질적인 활용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세계김치연구소는 AI 김치시뮬레이터를 김치지원은행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 가정용 레시피 설계부터 기업의 제품 개발·품질 관리까지 폭넓은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혁신위원회’ 내달 출범

외부위원 주축 혁신과제 발굴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와 농민단체 등 외부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해 농협 전반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추가적인 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농협혁신위원회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중앙회장의 역할·책임 범위, 당원직 운영 개선 방안 등을 비롯해 지역 농·축협 조합장과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 조합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 지배구조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농협은 정부의 개혁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협개혁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의 법제화를 통한 임원 선출 투명성 강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하고 비상임 조합장의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의 법제화 및 회원 등 지 의무화 △농·축협 외부 회계감사 주기 강화(기존 4년에서 매년 또는 2년으로 단축) 등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신보, 존중·배려 문화 확산

매월 22일 ‘상호존중의 날’ 운영

광주신보보존재단은 직장 내 존중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상호존중의 날’을 제정하고, 매월 22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우리 모두 서로 존중하는 하루,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를 목표로 일상 속에서 존중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내부 캠페인을 중심으로 상호존중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호존중의 날에는 존중과 배려의 메시지를 담은 실천 문구와 표어 포스터를 사무실 곳곳에 게시하고, 관련 메시지를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한편 일상 속 존중 실천 사례를 안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이승훈 기자 photo25@